

# 주말경제

## Economy

맞벌이 부부  
재테크 8계명

■ 아이 둘 있는 30대 맞벌이, 향후 재무계획을 짠다면?

## 청약부금 해지, '마이너스통장'부터 없애라

Q

남편은 37세로 대기업 대리로 근무하고 있고 33세인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생 아들(7세)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5세)을 봅니다. 재테크에 별 관심없이 살았지만 이젠 아이들도 크고 좀 구체적인 계획이라 살아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는 1억 5천만원 정도 하고 300만원짜리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저축을 해야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A

우리 인생에서 육아, 주택마련, 자녀교육, 은퇴 등 재무적 이벤트를 지금부터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행복한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재무설계는 마리온처럼 가족의 행복한 인생 설계를 위한 것이다.

◇ 맞벌이는 수입과 지출관리가 재테크의 첫걸음=이씨 부부처럼 근로소득자 맞벌이 부부의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과 지출관리이다. 부부 중 돈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가정의 재무상태

인다. 우리는 재산을 모은다고 하면 부동산을 먼저 떠올린다. 종자돈이 모이자면 투자할 만한 부동산이 없는가를 찾아나서는데 이는 지금까지 부동산이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도 재테크 수단으로 아파트를 선택했다. 대출금이라는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를 이용해 아파트를 마련한 후 전세를 내주고 가족은 보증금 일부와 월세로 생활해 자기자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아파트 가격

### 교육·노후자금 등 목적별로 자금소요 계획 짜야 금융자산 더 늘리고 보유재산은 분산투자 마땅

를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절세 혜택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절세 금융상품이 많지 않지만 제한된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씨 부부의 재무적 강점은 30대 중반에 내 집 마련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는 것과 맞벌이를 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쉽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택마련을 위해 금융자산을 전부 소진해 부채(임대보증금)가 있고 주택마련이라는 한가지 목표를 위해 올인하다보니 수입과 지출관리에 계획성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가정의 위험보장인 보험부문이 부족해 보

상승이 예상될 때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씨는 1억 5천만원의 아파트를 6천 500만원에 전세를 주고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 30만원에 살고 있다. 직장 및 자녀교육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접근해보면 은행에서 5천만원을 연 6.5%로 빌리면 매월 이자가 30만 원 정도된다.

월세 30만원을 주는 것보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이용해 본인 아파트에 사는 것이 심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다. 본인 아파트에 사는 것과 월세로 사는 것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4년후에 전세금 6천 500만원 중 3천만원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1천만원에 월 40만원씩 적립

30대 맞벌이 이씨 부부		
변경전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전세금	1,000만원	대출금
아파트	15,000만원	임대보증금
청약부금	300만원	
계	16,300만원	계
	7,400만원	
순자산	8,900만원	

  

변경후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전세금	1,000만원	대출금
아파트	15,000만원	임대보증금
계	16,000만원	계
	7,100만원	
순자산	8,900만원	

  

변경전 현금흐름표		
수입	지출	
월수입	400만원	월세
		30만원
		보험료
		12만원
		학원비
		50만원
		부모님응돈
		20만원
		통신비
		15만원
		생활비
		190만원
		여유자금
		83만원
계	400만원	계
	400만원	

  

변경후 현금흐름표		
수입	지출	
월수입	400만원	월세
		30만원
		보험료
		12만원
		학원비
		50만원
		부모님응돈
		20만원
		통신비
		15만원
		생활비
		173만원
		개인연금저축펀드
		25만원
		적립식펀드
		50만원
		변액유니버설보험
		25만원
계	400만원	계
	400만원	

30대 맞벌이 이씨 부부

변경전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전세금	1,000만원
아파트	15,000만원
청약부금	300만원
계	16,300만원
	7,400만원
순자산	8,900만원

변경후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전세금	1,000만원
아파트	15,000만원
계	16,000만원
	7,100만원
순자산	8,900만원

변경전 현금흐름표

수입	지출
월수입	400만원
	월세
	30만원
	보험료
	12만원
	학원비
	50만원
	부모님응돈
	20만원
	통신비
	15만원
	생활비
	190만원
	여유자금
	83만원
계	400만원
	400만원

변경후 현금흐름표

수입	지출
월수입	400만원
	월세
	30만원
	보험료
	12만원
	학원비
	50만원
	부모님응돈
	20만원
	통신비
	15만원
	생활비
	173만원
	개인연금저축펀드
	25만원
	적립식펀드
	50만원
	변액유니버설보험
	25만원
계	400만원
	400만원

식 펀드를 더하면 좋을 것이다. 나머지 3천 5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는 대신 금융자산을 늘리는 계획도 세워볼수 있다.

노후자금 준비도 미흡하다. 연금준비와 펀드, 그리고 소득공제까지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펀드에 매월 25만원씩 넣기를 권한다. 개인연금저축펀드 가입시 주식형은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최소 3년 이상의 수익률을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 청약부금 정리해 마이너스 통장부터 막아라=가족들의 보장부문 설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이나 아내의 부족한 보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또한 자녀의 대학 입학시험점까지 약 12년이 남았으므로 장기주식형 상품을 선택해 복리효과와 안정적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조건은 변액유니버설보험상품을 통해 해결해 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가족의 보장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족의 보장이 부족 할 경우에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순수 보장형 보험상품을 주가로 준비해야 하며 자녀의 대학 교육자금은 불입금이 적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우선 시작한뒤 주택 입주 문제가 해결되거나 급여가 인상될 경우 추가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교육자금 6천만원을 준비하는데, 수익률 10%를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고 하자. 적립기간을 12년과 6년으로 비교해보면 12년 동안 22만원씩 원금 3천 168만원만 적립하면 6천만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6년 동안 준비하려면 62만원씩 원금 4천 464만원을 적립해야 12년뒤에 6천만원을 기대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적은 금액을 오래

불입하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단기간에 걸쳐 적립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복리라는 마술 때문이다. 재테크의 왕도는 시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끝으로 내집을 마련한 이씨의 경우 청약부금은 정리해 서 마이너스 통장을 일부 정리하는 편이 좋을 듯 하다. 광주에서는 추가적인 청약통장을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 목적별로 통장 만들고 보유재산은 분산=리아이프사이클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씨는 전 재산을 아파트에 몰입하고 있다. 주택이 소유의 목적에서 거주의 목적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 특히나 광주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낮아 투자 가치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을 늘려, 금융자산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에 대비해 교육자금과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보험상품도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